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의 지속과 변화: 1994년과 비교

한 덕 응

강 혜 자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대구대학교 재활학과

조사 방법이나 조사 대상의 지역 및 연령별 분포가 본 연구와 동일한 양식으로 수행되었던 선행 연구(한덕응, 1994)와 비교하여 (1)1999년 시점에서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들을 파악하여 특징점을 기술하고, (2)중요한 사회문제로서 지난 5년간 지속되거나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학적 발생 근거와 가능한 해결 방향을 논의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에 추가하여 355개 문항의 사회문제 조사질문지를 전국 5개 지역에 총 1771명의 대학생과 장년층을 조사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령별, 성별 및 지역별로 분석하여 특징을 기술하고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1999년 시점에서 국민들의 50% 이상이 중요하다고 지각한 사회문제는 9개로서 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1)정치인의 부정부패/부조리, 2)환경오염, 3)공무원 부정부패/부조리, 4)입시위주 교육, 5)높은 실업률, 6)집단따돌림/왕따, 7)권력형 비리/부당한 관권 개입, 8)정치적 무능 9)지방대 출신 취업난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지각한 사회문제의 수와 영역은 1994년에 비해 1999년에 감소 추세를 보였다. 즉, 국민들의 50% 이상이 중요하다고 지각한 사회문제의 수가 1994년에는 16개이며, 지적된 문제 영역 역시 환경, 정치, 교통, 치안, 사치풍조, 경제, 청소년 등 다양한 데 비해서, 1999년에는 지적된 문제의 수가 9개로 감소되었고, 문제 영역도 감소되었다. 그러나 정치 행정의 부패/부조리가 다수 지적됨으로써 이 영역의 문제의식이 1994년에 비해 심화되었다고 보았다. 본 조사에서 환경오염 및 교통문제 등은 반응 백분율로 볼 때 1994년보다 다소 덜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여전히 상위 순위를 차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해결의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연령별, 성별 및 지역별 반응의 특징은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 방향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1994년과 1999년 두 시점에서 수행된 한국의 사회문제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한국의 사회 문제들 가운데 지속되거나 변화된 내용을 알아내어

서 심리학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가능한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문제란 다수이거나 영향력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기 좋은 사회

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바람직하지 못해서 장차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고 지각하는 사회의 객관적 조건이다(한덕웅, 1994, p. 21). 이상적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국가들에서 어느 시대이든 그 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들은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회문제들을 파악하는 일은 그 사회문제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 나아가서 사회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정부 발표의 각종 통계 자료나 유관 기관들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실질적 지표들을 개발함으로써 객관적 실재를 해명하는 접근법이다. 다른 하나는 객관적 사회 상황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 지각과 평가에 의존하여 사회문제를 파악하는 접근법이다(한덕웅, 1994). 본 연구에서는 필자(1994)의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후자의 접근법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을 국민의 지각에 따라서 알아내고자 한다.

현재까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관한 실증 연구는 일부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제한된 주제들에 한정되어 수행되었다(예: 고영복, 1991).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한 연구는 필자(1994)의 연구를 제외하면 없는 형편이다. 더구나 1980년대 한국 사회문제를 다룬 소수 연구들 가운데 단편적으로 소수의 사회문제 영역에서 시점간 변화를 다룬 연구들이 몇 편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연구들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최명·권태환·홍두승(1989)의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13개 사회문제의 영역별 대범주의 명칭들을 제시하고 중요한 사회문제 다섯 개를 선택하여 반응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의해서 수행된 이 연구는 시점에 따라서 몇 차례 반복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 가운데 두 시점마다 동일한 사회문제의 대범주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점에 따른 사회문제의 변화를 알아낸다는 목적에서 보면 시점간 비교가 어렵다.

본 연구는 필자(한덕웅, 1994)의 선행 연구가 수행된 1994년에 비해서 1999년에 어떤 사회문제들이 지속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사회문제들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 알아내는데 일차적 목표를 둔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조사된 내용, 조사의 대상이 지니는 인구통계적 변인들 및 반응의 측정 기법의 측면에서 비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비교할 때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한덕웅·최훈석·강혜자·이경성·박군석(1995)의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에 포함된 중요한 사회문제들은 내용으로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로 구성되는 제도 및 구조 문제, 문화·교육·청소년 문제로 구성되는 국민의 생활문화에 관련된 문제, 경제 및 지역간 불공정 문제, 그리고 생활 환경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한덕웅(1994)의 선행 연구에서 사회문제로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환경오염, 교통체증/교통난 및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이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필자의 선행연구와 비교하려는 목적에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문제들을 모두 포함하고 최근에 크게 부각된 사회문제들을 추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 기법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문제들을 동일한 순서로 배열하고 새로 추가된 사회문제들을 이어서 제시하여 동일하게 반응하는 체크리스트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도 선행 연구와 지역, 성별, 교육 수준 및 연령이 동일한 비율이 되도록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청년과 장년의 연령별 차이, 성별 차이, 그리고 서울, 영남 및 호남의 지역 차이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을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선정하기로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절차

한덕웅(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토대로 유사한 인구통계적 속성을 지닌 조사 대상에게 동일한 기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회문제 조사 체크리스트가 제작된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개선해야 될 사회 문제들을 총 222명의 대학생과 학부모가 각자 최고 20개까지 자유반응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에서 얻은 사회문제들의 내용을 분석해서 27개 대범주에 속하는 730개 사회문제들의 목록이 작성되었다. 그 후 반응빈도와 내용의 독립성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336개 사회문제 문항들로 이루어진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년의 시간이 경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대두된 사회문제 19개 문항을 추가하여 전체 35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추가된 19개 문항은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20명에게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문제 문항들 이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문제를 20개 정도 자유반응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내용분석해서 얻었다. 본 연구에서 추가된 문항들은 부록 1의 문항 번호 앞에 *표로 표시하였다.

조사 대상 : 시점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 연구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에 따라서 지역별 조사 대상의 수를 한덕웅(1994)의 연구와 유사하게 하였다. 한덕웅(1994)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1990년 인구 센서스(통계청 통계조사국 인구통계과 자료)와 1992년 교육연감을 참고로 서울, 중부, 영남, 호남, 강원도의 5개 지역별 표본을 정하여 할당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조사 담당자의 제량으로 대학생들에게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의 편의상 이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부모에게 조사를 실시해 오도록 함으로써 장년층 대상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생의 현재 거주지에 부모가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친척이나 부모 연배의 후견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한덕웅, 1994).

본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하였다. 지역별 조사 대상들의 소속 대학교도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하였다. 즉 서울지역은 성균관대, 광운대, 성신여대, 중부지역은 아주대, 충북대, 충남대, 영남지역은 부산대, 효성카톨릭대, 경상대, 호남지역은 전북대, 전남대, 그리고 강원지역은 강릉대가 포함되었다. 최종의 자료 분석에 실제로 사용된 조사 대상은 서울지역 661명(대학생 335명, 장년 326명), 중부지역 378명(대학생 190명, 장년 188명), 영남지역 409명(대학생 212명, 장년 197명), 호남지역 235명(대학생 120명, 장년 115명), 강원지역 88명(대학생 44명, 장년 44명)으로 총 1771명이었다. 1994년 연구의 조사 대상은 1812명이었다.

조사 대상의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의 연령 평균은 33.98세(표준편차 14.21)였다. 대학생 연령 범위는 17세부터 29세까지로서 중앙치는 20세이고, 장년층 연령 범위는 35세부터 74세까지로서 중앙치는 48세였다. 장년층 조사 대상의 직업은 주부(282명), 회사원(155명), 상업(115명), 공무원(57명), 사업(69명), 농업(32명), 무직(37명), 교사(32명), 은행원(5명), 전문직(11명), 기타(80명) 등이었다. 조사 대상이 지닌 인구통계적 변인별 분포는 성별 비율만 제외하면 1994년과 매우 유사하다.

표 1. 본 연구(1999년)와 선행연구(1994)의 조사 대상

조 사 대 상		1999년(%)	1994년(%)
연 령	대학생	901(50.87)	914(50.44)
	일 반	870(49.12)	898(49.56)
성 별	남 자	898(50.71)	1058(58.39)
	여 자	873(49.29)	754(41.61)
지 역	서 울	661(37.32)	686(37.86)
	중 부	378(21.34)	373(20.58)
	영 남	409(23.09)	424(23.40)
	호 남	235(13.27)	241(13.30)
	강 원	88(4.97)	88(4.86)
전 체		1771	181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을 속성별로 구분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조사의 실시 :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다음 절차를 취하였다. 먼저 대학생들은 학교의 강의 시간에 조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대학생들에게 귀가 후 자신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년층의 자료를 얻었다. 조사의 지시에서는 사회문제 조사지 목록에 제시된 한국의 사회문제를 가운데서 한국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항들을 수에 제한받지 말고 밑줄을 그어서 가려내도록 하였다. 조사는 1999년 4월과 5월에 걸쳐 실시되었다.¹⁾

자료의 처리 : 연령, 성별 및 지역별로 각 사회문제 문항의 백분율이 산출되었다. 전체 조사 대상의 반응 백분율은 1994년 자료와 마찬가지로 성별 및 연령별로 얻은 백분율들의 평균으로부터 산출하였다. 이 방법은 이 변인별 사례수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각 변인간 반응 백분율과 상호작용 효과는 사례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수를 가정하여 차이 검증하는 Log-linear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1994년과 비교해서 지난 5년 간 사회문제 지각의 변화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 조사와 선행연구에서 얻은 반응 백분율을 χ^2 검증하였다. 이 조사에 포함된 355개 문항들에 대한 조사 대상의 전체, 연령별, 성별 및 지역별 반응의 순위와 백분율 및 이 변인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부록 1에 제시되었다.

1) 조사의 실시에 협조해 주신 김정남(경상대), 김교현(충남대), 성한기(효성카톨릭대), 이배호(전남대), 양계민(충북대), 박군석(성신여대), 최양규(부산 춘해대), 임대열(강릉대) 선생님과 아주대 석사과정의 장진덕님께 감사드린다.

결과 및 논의

사회문제 지각의 전반적 특징점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 : 1999년과 1994년에 각각 조사 대상의 30% 이상의 국민들이 지적인 사회문제들을 영역별로 빈도를 산출한 자료는 표 2에 제시하였다. 1999년 자료에서 전체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지적인 사회문제는 모두 9개였다. 이 9개 문항의 반응 백분율을 순위 별로 보면, 1)정치인의 부정부패/부조리(75.27%), 2)환경오염(73.10%), 3)공무원 부정부패/부조리(65.33%), 4)입시위주 교육(59.23%), 5)높은 실업률(59.01%), 6)집단따돌림/왕따(56.86%), 7)권력형 비리/부당한 관권 개입(51.72%), 8)정치적 무능

표 2. 조사 대상이 중요하다고 본 문항들의 사회문제 영역별 분류표

사회문제 영역	50%이상	40%~ 50%미만	30%~ 40%미만	계
정치	4(1)	5(6)	7(14)	16(21)
행정		5(2)	4(13)	9(15)
외교		(1)	1(2)	1(3)
환경	1(4)	3(2)	4(4)	8(10)
경제	1(1)	2(5)	6(13)	9(19)
교육	1(4)	3(5)	8(12)	12(21)
치안	(2)	1(2)	3(1)	4(5)
교통	(1)	1(3)	3(2)	4(6)
지역차별/감정		1(2)	2(1)	3(3)
빈부격차		2(2)	(2)	2(4)
농촌	(1)	(3)	3(5)	(9)
청소년	1(1)	3(4)	2(4)	6(9)
사회문화	(1)	5(11)	13(13)	18(25)
노인		1(2)	(1)	1(3)
의료/보건		(1)	2(8)	2(9)
과학기술		(1)	1(2)	1(3)
언론		1(1)	(4)	1(9)
사법			2(3)	2(3)
주택			(2)	(2)
종교			2(3)	2(3)
여성			2(3)	2(3)
사회복지		(1)	3(2)	2(3)
총계	8(16)	33(54)	68(114)	109(184)

* 괄호 안은, 1994년도에 보고된 자료의 수.

(50.76%) 9)지방대 출신 취업난(49.75)의 순서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로서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행정의 부패와 부조리가 특히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994년에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지적한 문항들은 모두 16개였는데, 1999년에는 50%이상의 다수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사회문제의 수는 9개로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의 수가 적게 지적된 추세는 조사대상의 40% 이상과 30% 이상이 지적한 사회문제들에서도 볼 수 있다. 즉, 1994년에는 전체 조사 대상의 40% 이상이 중요한 문제로 한 문항들이 54개였는데, 1999년에는 33개로 감소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의 30% 이상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한 문항은 1994년에 114개 였는데 비해 1999년에는 68개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정치, 경제, 사회의 측면에서 두 조사 시점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조사 자료는 1993년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1994년에 보고된 선행 연구는 노태우 정권 이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지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는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억제되었던 많은 요구가 분출되어 나타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이 시점 이전까지 약 30여년간 군사정권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다양한 기본 권리들이 탄압을 받았고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욕구조차 사회적 표출이 억제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의 이른바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1994년에 수행된 이 연구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중요한 사회문제로서 다수 지적된 배경도 이와 같은 국민의 높아진 기대가 표출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과제로서 지적된 사회문제의 수가 많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3에는 전체 대상의 50% 이상이 지적한 문제들을 전체 순위와 백분율, 대학생 순위와 백분율 및 장년층 순위와 백분율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표 3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점은 정치/행정의 부정부패와 부조리의 문제가 높은 백분율로 지적된 점이다. 특히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지적한

9개의 중요 사회문제들 가운데 반 수에 가까운 4개 문항이 정치/행정의 부정부패와 부조리에 관련된다. 1994년에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반응을 보인 문항 중 정치문제로는 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2위, 66.94%) 문항 하나에 불과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지적한 중요 사회문제로는 1) 환경오염, 2) 정치인의 부정부패/부조리, 3) 교통체증/교통난/낮은 도로율, 4) 식수오염, 5) 산업폐기물/공장폐수 처리, 6) 입시위주 교육, 7) 성범죄 증가/여성치안 부재, 8) 대기오염, 9) 부유층 과소비/불로소득자 호화생활, 10) 농수산물 수입 개방/우루과이라운드, 11) 청소년 가치관 혼란, 12) 중소기업 도산, 13) 강력범죄 증가/홍악화, 14) 교육의 창의력/사고력 개선, 15) 지방대 출신 취업난, 16) 대학입시 지옥 등의 순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9개 최상위 문항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개 문항들이 정치와 관련된 문제로 지적된 데 비해서, 한덕웅(1994)의 조사에서는 16개 상위 문항들 중 8위 내에 환경에 관련된 문항들이 4개나 되었다. 1994년의 조사 시점과 비교해서 본 조사에서는 환경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지적되고, 대신 정치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다. 이는 1994년에 비해서 다른 사회문제들보다 정치와 관련된 사회문제들이 더 심화되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순위 뿐 아니라 백분율의 차이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를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정치인 부정부패, 공무원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정치적 무능 등의 정치 분야의 문항에서 모두 반응 백분율이 1994년에 비해서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정치적 무능이 1994년과 달리 본 조사에서 8위(50.76%)로 부상하여 김대중 정부의 정치력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 조사 대상이 반수에 이른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1999년의 세계 각국 부패지수(국가 청렴도 순위)를 보면 한국은 99개국 중 50위에 기록되었다(문화일보, 1999년 10월 27일자). 이 부패지수의 신빙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도 있으나 이 지수는 정치나 행정 분야의 부정부패가 중요한 요소로 측정된다. 참고로 근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를 제시해

표 3. 1994년과 1999년 조사에서 50% 이상이 중요하게 본 사회 문제들

	문항내용	본 조사 자료(1999년 4~5월)			한덕웅(1993년 11월)의 자료		
		전 체	학 생	장 년	전 체	학 생	장 년
정치/행정	정치인의 부정부패/부조리	(1)75.27	(2)78.14	(1)72.47	(2)66.94***	(2)71.12	(2)62.69
	공무원 부정부패/부조리	(3)65.33	(3)68.04	(3)62.67	(38)44.43***	(51)44.86	(35)43.99
	권력형 비리/부당한 관권 개입	(7)51.72	(9)54.50	(9)48.96	(42)43.98***	(43)46.06	(44)41.87
	정치적 무능	(8)50.76	(8)57.38	(19)44.01	(138)32.04***	(141)34.50	(154)29.54
환경공해	환경오염	(2)75.10	(1)78.36	(2)71.89	(1)79.46**	(1)83.03	(1)75.84
	식수오염	(21)45.51	(37)43.17	(10)48.04	(4)60.76***	(8)60.72	(3)60.80
	산업폐기물/공장폐수처리	(29)43.70	(36)43.29	(18)44.24	(5)60.68***	(5)64.29	(5)57.02
	대기오염	(34)42.18	(51)40.73	(20)43.78	(8)55.96***	(9)57.99	(7)53.90
교육	입시위주 교육	(4)59.23	(4)67.15	(6)51.15	(6)60.65	(3)68.27	(8)52.90
	지방대 출신 취업난	(9)49.75	(13)52.16	(12)47.35	(15)49.67	(20)51.75	(16)47.55
	교육의 창의력/사고력 개선	(20)45.62	(7)57.60	(66)33.29	(14)49.72*	(7)62.47	(76)36.75
	대학입시지옥	(55)37.27	(16)49.56	(40)42.51	(16)49.56	(19)52.63	(21)46.44
경제	높은 실업률	(5)59.01	(6)62.93	(4)55.07	(71)39.13***	(113)37.42	(49)41.76
	중소기업 도산	(46)38.85	(31)44.62	(70)32.59	(12)50.39	(14)55.03	(24)45.66
	농수산물수입 개방/우르과이라운드	(247)18.24	(283)15.21	(201)21.43	(10)51.43	(12)57.00	(26)45.77
청소년	집단 따돌림/왕따	(6)56.86	(5)62.93	(7)50.69	(1999년에 새로 추가된 문항)		
	청소년 가치관 혼란	(28)43.93	(15)49.94	(40)37.79	(11)51.32***	(10)57.55	(33)44.99
교통	교통체중/교통난/낮은 도로율	(37)41.56	(32)44.51	(38)38.59	(3)62.03***	(4)66.19	(4)57.80
치안/범죄	성범죄 증가/여성치안 부재	(32)42.80	(22)47.84	(42)37.67	(7)57.01***	(6)62.47	(9)51.45
	강력 범죄 증가/흉악화	(80)33.26	(124)30.19	(50)36.52	(13)50.22	(27)49.78	(11)50.67
사치풍조	부유층과소비/불로소득자호화생활	(15)46.75	(43)42.06	(5)51.73	(9)52.62***	(31)48.58	(6)56.74

1) 숫자는 조사 대상 전체, 학생, 장년 순으로 제시되었다. 괄호 안은 빈도 수에 따른 순위를 나타내며, 이어서 백분율이 제시되었다. 이하의 표도 이와 같다.

2) 1999년과 1994년의 전체 반응의 차이검증 * $p < .05$, ** $p < .01$, *** $p < .001$

보면, 1996년에는 54개국 중 27위, 1997년에는 52개국 중 34위, 그리고 1998년에는 85개국 중 43위에 기록되었다(문화일보, 1999년 10월 27일자). 이러한 기

록과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공직 사회의 부패 양상은 수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정

치권을 포함해서 한국의 공직 사회에서 부정, 부패, 비리의 청산을 위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덕웅(1994: 20쪽, 30쪽)은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비리의 척결을 위해서 제도권에서는 공직자의 생활 보장을 기반으로 집단간 이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분배와 절차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국민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용인하고 범하는 일상적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양방향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사회 각 분야에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초기 집권 시기에는 강력하게 시도된 바 있다.

예컨대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정치 개혁법 통과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정치 현실에 만족을 느끼지 않았음이 여러 조사에서 시사되었다(김해숙, 1994). 특히 당시의 한 조사에서는 정치권의 부패가 타 분야의 부패 문제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각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현대사회연구소, 1993). 한국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러한 국민들의 지각은 현 시점에서 더 심화되었음이 본 조사의 결과에서 시사된다. 적어도 국민이 지각하는 수준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부정부패와 비리가 감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현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과 일치된 관점을 반영하듯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지난 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 협약에 서명을 하였으며, 대내적으로 지난 9월에 반부패특위를 출범시키고 부패방지기본법 제정도 가시화하고 있다. 부정부패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지속되는 문제 중의 하나로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도적 개선 노력과 아울러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개혁하는 부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1994년에 79.46%로 1위를 차지했던 환경오염 문제는 1999년에는 75.10%로서 2위가 되었고, 1994년에 비해서 반응 백분률 역시 유의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문제는 순위와 백분률 모두에

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4년에는 39.13%로서 71위를 차지한 높은 실업률은 본 조사에서 5위(59.01%)로 지적됨으로써, 1994년에 비해 백분률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1999년에 실업률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한 반응이 급증한 이 결과는 금융위기로 인한 이른바 IMF 사태로 실업이 증가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IMF 금융위기 이전의 낮은 실업률에 비해서 실제로 정리해고를 포함하는 기업의 규모 축소 조정이나 정부 조직 및 공공부문의 감축으로 인해서 나타난 실업에 대한 위기 의식이 국민에게 확산된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집단 따돌림(왕따)은 최근에 부각된 사회문제로서, 본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인데, 백분률 순위 6위를 차지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집단따돌림의 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8)에 의하면, 1998년도 상반기 학교폭력에 관한 전화상담 요청자 342명 중 집단따돌림에 관한 상담은 148명(43.3%)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148명 중 여학생이 54.8%, 남학생이 45.2%로 집단따돌림 현상은 남,여학생 모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또한 피해자들은 중학생이 59.5%, 초등학생이 20.3%, 고등학생이 17.5%로 중학생들의 왕따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 이 집단따돌림의 피해 후에 피해자들 중 40%가 불안을 호소하였고, 등교거부, 전학요구가 18.9%, 정신과 치료가 2.7%, 자살 시도가 0.6% 순으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왕따 피해 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관해서 국민들의 문제 의식이 높게 나타난 배경에는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에 잘 알려진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사회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떠나서 학교 교육만으로 효과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활동과 연결시켜서 학교, 사회, 및 가정의 연합된 개선 노력이 요청된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 입시 위주 교육(1999년, 60.65

표 4. 1999년 조사 대상의 40%~50% 미만이 중요하게 본 33개 사회문제(9위~41위)

문항 내용		본 조사 자료(1999년 4~5월)			한덕웅(1993년 11월)의 자료		
		전 체	학 생	장 년	전 체	학 생	장 년
정치/행정	기득권층 이익만을 보호하는 정치	(14)46.92	(11)53.61	(33)40.09	(55)42.77*** ¹⁾	(84)39.50	(19)46.10
	정치 지도자의 자질/술전수법 부족	(25)44.21	(35)43.40	(15)45.16	(73)38.74***	(94)38.51	(65)38.98
	정치인 권력 다툼	(33)42.41	(44)41.73	(21)43.20	(129)32.84***	(169)31.51	(103)34.19
	국민의 정치 불신/정치 무관심	(35)42.12	(39)42.95	(29)41.36	(50)42.60	(46)45.84	(59)39.91
	법조인 부정부패 부조리	(39)40.99	(56)39.62	(25)42.51	(143)31.95***	(172)31.07	(123)32.85
	공무원 무사안일	(24)44.61	(21)48.06	(30)41.13	(80)37.86***	(85)39.39	(72)36.30
	경찰의 부정부패/부조리	(26)44.16	(23)47.61	(32)40.67	(100)35.87***	(112)37.42	(99)34.30
	공무원의 권위적 태도/봉사정신 결여	(31)42.91	(30)45.06	(31)40.78	(48)42.72	(52)44.42	(52)40.98
	정부의 재정 낭비	(18)46.02	(25)47.39	(16)44.70	(173)30.02***	(180)30.42	(152)29.62
	병역비리/부정	(12)47.43	(27)47.28	(11)47.70	(1999년에 새로 추가된 문항)		
경제	고소득자 탈세	(10)49.63	(16)49.83	(8)49.54	(72)39.07***	(122)36.21	(47)41.98
	빈부격차/부의 편중	(11)48.22	(12)53.16	(22)43.20	(30)45.89	(23)51.31	(50)40.36
	서민 생활고	(27)44.16	(34)43.84	(17)44.59	(98)36.26***	(135)35.34	(66)37.19
	빈익빈 부익부	(36)41.90	(26)47.39	(51)36.29	(53)41.83	(40)46.72	(80)36.86
환경공해	식수오염	(21)45.51	(37)43.17	(10)48.04	(4)60.76***	(8)60.72	(3)60.80
	산업폐기물/공장 폐수 처리	(29)43.70	(36)43.29	(18)44.24	(5)60.68***	(5)64.29	(5)57.02
	대기오염	(34)42.18	(51)40.73	(20)43.78	(8)55.96***	(9)57.99	(7)53.90
교통	교통체증·교통난/낮은 도로율	(37)41.56	(32)44.51	(38)38.59	(3)62.03***	(4)66.19	(4)57.80
청소년	청소년 문화공간 부족	(23)44.78	(10)53.83	(56)35.48	(28)46.36	(11)57.36	(84)35.30
	청소년 가치관 혼란	(28)43.93	(15)49.94	(40)37.79	(11)51.32***	(10)57.55	(33)44.99
	청소년 범죄/범죄연령 저하	(30)42.97	(33)44.51	(28)41.47	(33)45.25	(44)45.96	(29)44.54
교육	지방대 출신 취업난	(9)49.75	(13)52.16	(12)47.35	(15)49.67	(20)51.75	(16)47.55
	교육의 창의력/사고력 개선	(20)45.62	(7)57.60	(66)33.29	(14)49.72*	(7)62.47	(76)36.75
	교육정책의 일관성/장기 계획결여	(22)45.29	(18)48.95	(27)41.59	(23)47.57	(15)54.60	(54)40.02
치안/범죄	성범죄 증가/여성 치안 부재	(32)42.80	(22)47.84	(42)37.67	(7)57.01***	(6)62.47	(9)51.45
사회문화	허례허식 풍조/과다한 혼수 비용	(13)47.37	(19)48.39	(13)46.43	(31)45.74	(69)41.00	(10)50.50
	부유층 과소비/불로소득자 호화생활	(15)46.75	(43)42.06	(5)51.73	(9)52.62***	(31)48.58	(6)56.74
	뇌물(부패)풍조 만연	(17)46.13	(17)49.17	(24)43.09	(109)35.26***	(114)37.20	(117)33.30
	장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38)41.39	(14)50.61	(81)31.91	(111)34.82***	(72)40.70	(168)28.84
	물질(황금) 만능주의	(41)40.03	(38)43.17	(48)36.87	(19)48.81***	(32)48.47	(12)49.16
지역차별/감정	지역감정 해소	(16)46.41	(24)47.61	(14)45.28	(32)45.58	(42)46.27	(31)44.88
노인	노인 소외/노인 복지/노인 정책	(19)45.68	(20)48.28	(23)43.09	(21)48.32	(25)50.49	(20)46.10
언론	언론의 공정성/편파보도	(40)40.77	(29)45.39	(53)36.06	(56)41.77	(29)48.89	(102)34.63

1) 1999년과 1994년의 전체 반응의 차이검증 * $p < .05$, ** $p < .01$, *** $p < .001$

%, 1999년 59.23%)이나 지방대 출신 취업난(1994년 49.67%, 1999년 49.75%)은 지난 5년 사이 순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50%의 유사한 반응을 보여서 지속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서 인식되었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의 40% 이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사회문제들은 모두 33개였는데, 이 사회문제들은 표 4에 제시되었다. 이 33개 문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고, 경제, 교육, 청소년, 환경,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상당수 지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적된 내용 영역에 있어서는 한덕웅(1994)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백분율에서 정치/행정에 관련된 문제들은 대체로 1994년에 비해 현 시점에서 유의하게 더 중요한 문제로 지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한편 환경에 관련된 일부 문항들은 1994년보다 1999년에 중요성 지각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예컨대 1994년에 4위(60.76%)를 차지했던 식수오염 문제는 1999년에 21위(45.51%)를 차지하여 국민들의 중요성 평가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또한 산업폐기물/공장폐수 처리 문항과 대기오염 문항은 1994년에 각각 5위(60.68%)와 8위(55.96%)를 차지했었는데, 1999년에는 각각 29위(43.70%)와 34위(42.18%)를 차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중요성 지각에서 유의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과거 10여년 동안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국민의 감시와 법적 제도적 절차도 개선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반응이 1994년에 비해서 1999년에 낮아진 이유도 이 현상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교통에 관련된 사회문제에서는 본 조사와 선행 연구 결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조사의 결과에서 교통 문제 가운데 조사 대상의 40% 이상이 반응한 문항으로는 하나만 지적되었다(교통체증/교통란/낮은 도로율, 37위, 41.56%). 그러나 1994년에 이 문항은 3위를 차지한 중요 문제였으며(62.03%), 조사 대상의 40% 이상이 응답한 문항들 가운데는 대중교통수단 정책 개선(24위, 47.30%), 높은 교통사고율(27위, 46.36%), 주차난(47위, 42.77%) 등 3개가 지적되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에 관련된 사회문제는 1994년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다고 평가함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자동차 보유율이 높아진 현상은 최근 20여년 동안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교통문화에 관한 국민의 이해, 교통 상식, 운전자의 태도와 행동 및 교통 정책과 행정에 관련되는 사회문제들은 다른 교통 선진국들과 달리 국민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현상들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교통에 관련된 사회문제들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 체계의 보완, 일부 행정의 개선과 아울러 언론기관을 포함하는 교통 관련 공공기관의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일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교통문제는 어느 국가 사회에서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특히 한국처럼 단기간에 급속히 대두된 교통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교통 선진국의 개선 모형을 그대로 채택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전자의 운전 태도와 행동, 교통체계, 교통 법규와 행정의 모든 측면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개선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교통사고 감소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한국일보, 1999년 7월), 이는 특히 교통사고율에 관한 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OECD는 교통사고의 감소율과 달리 한국의 교통사고율이 여전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한국일보, 1999년 7월), 이는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회문제를 시사한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지방자치가 점차 강화됨으로써 교통문제의 해결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점에도 착안하여야 한다. 지방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물리적 측면에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과제조차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에 지방자치제가 강화되면서 각 지역의 특징에 적합한 교통 정책과 행정 기법을 개발하여 지역별로 개선을 시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덕웅(1996)의 연구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운전자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교통 체계를 포함하는 교통환경 문제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국가 차원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통괄하여 관리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개선책을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적이고 분권화된 교통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타 청소년 문제, 교육에 관련된 문제, 지역감정의 해소, 노인 소외 문제, 언론의 공정성 문제 등은 조사 대상의 40% 이상이 지적한 중요 사회문제들로서, 중요성 지각의 차이를 볼 때, 본 조사와 선행 연구의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1994년과 1999년에 여전히 유사한 정도로 중요하게 지각되고 있는 문제들로서 그 동안 별다른 개선의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되었다.

지금까지 1999년 4~5월(김대중 정부 출범 1년 2개월째)에 실시된 조사와 1993년 11월(김영삼 정부 출범 9개월째)에 실시된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지속해서 중요하거나 중요성의 평가가 달라진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략적으로 비교 서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4년에 비해 1999년에 중요한 사회문제의 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둘째, 1994년에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내용이 다양했으나, 1999년에는 지적된 내용의 다양성이 작아지고, 정치 문제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고, 경제 문제로서 높은 실업률이 새로 지적되었다. 셋째, 환경오염/공해, 교통 등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이지만 1994년과 비교해 볼 때 1999년에 반응 백분률에서 유의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넷째, 교육, 청소년, 지역감정, 노인복지, 언론의 공정성 등의 사회문제는 두 시점에서 모두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반응율이나 순위에서 시점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사회문제에 대한 연령별, 성별 및 지역별 반응 차이

연령에 따른 차이 : 장년층이 대학생들보다 사회문제로서 중요하다고 반응한 순위가 높은 문항들로

는 부유층 과소비/불로소득자 호화생활(장년 5위, 학생 43위), 고소득자 탈세(장년 8위, 학생 16위), 식수 오염(장년 10위, 학생 37위), 대기오염(장년 20위, 학생 51위), 생활 쓰레기 처리(장년 26위, 학생 68위), 병역비리/부정(장년 11위, 학생 27위), 지역감정 해소(장년 14위, 학생 24위), 정치 지도자의 자질/술선수범 부족(장년 15위, 학생 35위), 정치인 권력다툼(장년 21위, 학생 44위), 정부의 재정낭비(장년 16위, 학생 25위), 서민 생활고(장년 17, 학생 34위) 등이었다.

한편, 대학생이 장년층보다 사회문제로서 중요하다고 반응한 순위가 높은 문항들로는 교육의 창의력/사고력 개선(학생 7위, 장년 66위), 청소년 문화공간 부족(학생 10위, 장년 56위), 청소년 가치관 혼란(학생 15위, 장년 40위), 정치적 무능(학생 8위, 장년 19위), 기득권층 이익만을 보호하는 정치(학생 11위, 장년 33위), 빈부격차/부의 편중(학생 12위, 장년 22위), 빈익빈 부익부(학생 26, 장년 51위), 장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학생 14위, 장년 81위), 성범죄 증가/여성의 치안 부재(학생 22위, 장년 42위), 여성의 상품화(학생 28위, 장년 143위), 언론의 공정성/편파보도(학생 29위, 장년 53위) 등이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요약해보면 대체로 장년층들은 생활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주는 문제들, 부유층이나 지도층의 위화감 조성, 환경과 재활용 문제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서, 대학생들은 교육, 청소년, 여성, 경제적 및 사회적 차별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한덕웅, 1994)의 결과와 유사한데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 : 반응 백분률의 순위로 볼 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사회문제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 문항들은 병역비리/부정(남성 7위, 여성 42위), 빈부격차/부의 편중(남성 11위, 여성 23위), 지역감정 해소(남성 12위, 여성 30위), 공무원 무사안일(남성 14위, 여성 41위), 교육정책의 일관성/장기계획 결여(남성 15위, 여성 32위), 경찰의 부정부패/부조리(남성 17위, 여성 38위), 법조인 부정부패/부조리(남성 26위, 여성 48위) 등이었다. 반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사

회문제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 문항들은 성범죄 증가/여성 치안 부재(여성 7위, 남성 88위), 여성의 상품화(여성 31위, 남성 118위), 성폭력(여성 35위, 남성 120위), 아동학대/아동 성범죄(여성 46위, 남성 206위), 남녀차별(여성 57위, 남성 217위), 식수 오염(여성 10위, 남성 35위), 대기오염(여성 21위, 남성 48위), 생활 쓰레기 처리(여성 27위, 남성 71위), 서민 생활고(여성 12위, 남성 41위), 허례허식 풍조/과다한 혼수 비용(여성 8위, 남성 25위), 노인 소외/노인복지/노인정책(여성 16위, 남성 23위), 청소년 문화공간 부족(여성 19위, 남성 29위), 청소년 범죄/범죄연령 저하(여성 24위, 남성 38위), 청소년 비행/범죄 증가(여성 43위, 남성 53위) 등이었다.

남녀 두 집단의 차이를 보면 먼저 남성들의 경우 주로 부정부패를 포함해서 정치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한덕웅, 1994)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선행 연구의 조사 문항들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병역비리/부정이 본 조사에서 높은 순위로 지적된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인 남성의 경우 이 사회문제가 중요하다고 본 반응은 7위로 지적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병역문제는 1997년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되고 이후 일부 부유층과 유명인들의 병역비리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한편 여성들은 정부의 재정낭비(여성 14위, 남성 22위), 정치인 권력다툼(여성 28위, 남성 37위) 등과 같은 정부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문항들에서 남성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순위로 지적을 하였지만, 그 밖에는 대체로 여성, 생활환경, 범죄, 노인, 청소년 문제들을 남성들보다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하였다. 이 사회문제를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성 관련 문제, 성 차별 및 범죄들을 높은 순위로 다수 지적하였다. 이러한 남녀의 반응 차이는 한덕웅(1994)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특징적인 현상은 이러한 문항들의 반응순위에서 남녀의 차이가 현저하게 큰 점이다. 예컨대 성범죄 증가/여성치안부재는 여성이 7위인 반면 남성은 88위로 지적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여성의 상품화는 여성이 31위로 지적을 한 데 비해서 남성은 118위로, 그리고 여

성이 35위로 지적한 성폭력 문항의 경우 남성은 그 중요성이 120위였으며, 남녀차별은 여성에게 57위로 지각된 데 반해 남성은 217위였다. 이 결과는 성별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에 따른 차이 : 서울지역 거주자들이 지방 도시 거주자보다 사회문제로서 더 중요하게 지각한 문항들은 지역감정해소(서울 9위, 지방 도시 28위), 교통체증/교통난/낮은 도로율(서울 16위, 지방 도시 51위), 빈익빈 부익부(서울 21위, 지방 도시 39위) 등이다. 지역감정해소 문제는 지방 도시보다 오히려 지역감과 비교적 관련성이 낮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순위가 더 높은 점이 특징이다. 앞에 제시한 사회문제를 가운데 지방 도시 거주자들이 서울 지역 거주자보다 높은 반응을 보인 교통 문제는 한덕웅(1996)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지역에 따른 실제 환경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지방 도시 거주자들이 서울 지역 거주자보다 사회문제로서 더 중요하게 지각한 문항들은 지방대 출신 취업난(지방 도시 4위, 서울 159위), 병역 비리/부정(지방 도시 10위, 서울 26위), 뇌물(부패) 풍조 만연(지방 도시 13위, 서울 22위), 식수오염(지방 도시 14위, 서울 29위), 산업폐기물/공장 폐수 처리(지방 도시 24위, 서울 33위), 서민 생활고(지방 도시 18위, 서울 37위) 등이다. 식수오염은 1994년에는 서울이 3위, 지방이 7위를 차지했는데, 본 조사 결과에서 서울이 29위, 지방이 14위를 차지함으로써 모두 순위가 낮아졌지만, 서울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식수오염을 덜 심각한 문제로 지각하고 있다.

한편, 지역을 세분해서 영남과 호남으로 나누어서 반응 영역을 비교한 결과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지역 모두 환경오염과 정치인 부정부패를 각각 1위와 2위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1999년 시점에서 두 지역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는, 지역감정해소(호남 6위, 영남 38위), 행정기관 서울지역 편중(호남 10위, 영남 315위),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호남 33위, 영남 105위), 지역 차별 해소(호남 40위, 영남 64위), 정치적 무능(영남

8위, 호남 29위), 정치지도자의 자질/술선수범 부족(영남 11위, 호남 93위), 식수오염(영남 9위, 호남 27위), 산업폐기물/공장폐수 처리(영남 13위, 호남 25위), 대기오염(영남 16위, 호남 48위) 등이 지적되었다. 요약해보면 호남인들은 영남인들에 비해서 지역 간 갈등 및 차별의 해소를 중요 문제로 지각하여 지역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영남인들은 정치와 환경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의 과제 : 본 연구에서 필자(1994)의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현 시점까지 지속되거나 변화된 사회문제들을 파악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방법과 대상을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용이한 방향에서 선정하였다. 그러나 20대 대학생과 40~50대 학부모인 장년층으로 조사의 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두 연구의 결과가 한국의 인구를 대표하는 전집에서 추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 보고된 1994년과 1999년의 두 연구의 조사 대상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이고 교육 수준에서 평균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계층의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사회문제들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래 연구에서는 한국의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집에서 표본을 추출한 사회조사와 아울러 다양한 연령, 경제 수준 및 교육 수준을 지닌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회문제들도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고영복 편 (1991). **현대 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김혜숙 (1994).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식과 행동 : 선거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54-68.
- 이서행 (1991). 한국사회의 부정 부패. 고영복 편, **현대 사회문제**(pp. 547-583). 서울: 사회문화 연구소.
- 최명, 권태환, 홍두승 (편) (1989). **사회조사 10년: 1979-198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인섭(1991). 범죄문제. 고영복 편, **현대 사회 문제** (pp. 147-186). 서울: 사회문화 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 (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 한덕웅 (1994). 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20-53.
- 한덕웅 (1996). **지역 밀착형 교통사고 방지 대책: 지역별 교통 환경과 운전 행동의 특징**. 도로교통안전협회 연구보고서.
- 한덕웅, 최훈석, 강혜자, 이정성, 박군석(1995). 한국 사회문제의 지각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1), 99-111.
- 현대사회연구소 (1993). **국민여론조사보고서**. 현대사회연구소.

1차 원고 접수 : 2000년 3월 21일

최종 원고 접수 : 2000년 6월 28일

A Survey of Important Social Issues in Korean Society (II): The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btained in 1994

Doug-Woong Hahn* and Hye-Ja K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

The important social issues that are perceived by the middle class of Korean people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e findings from the previous survey (Hahn, 1994). Based on the method used in the previous study, the checklist containing 355 social issues were administered to 1771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5 regional areas in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ge, sex, and regional areas to compare their characteristics with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9 important social issues with more than 50% of participants endorsed. More specifically,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order were: ① injustice and corruption of the politicians, ② environmental pollution, ③ injustice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servants, ④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⑤ high rate of unemployment, ⑥ social ostracism in school setting, ⑦ authority corruption, ⑧ political weakness of the government, and ⑨ unemployment of the graduates from the local colleges. Overall, the number of important social issues in 1999 decreased from those in 1994. However, the injustice and the corruption of the politicians seemed to become worse in 1999 than in 1994 (1994, 66.94%; 1999, 75.27%). According to the response rates in the present surve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raffic issue seemed to be less important than in 1994. The findings based on the analyses by age, sex and the regional areas were similar to the previous study of 1994.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are discussed.

부록 1. 전체 문항별 반응의 순위, 배분률 및 차이 검증 결과

* $p < .05$, $npk(01, asymp, 001)$

문항 번호	문항	전체 ('99년)		전체 ('94년)		연령별(A)		성별(B)		지역별(C)		A B AB C AC BC ABC	
		순위 %		순위 %		학령		남자		서울		지방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14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1 75.27	2 66.94 ^{***}	1 72.47	1 73.50	2 77.04	2 77.04	1 73.07	2 76.71				
48	화장오염	2 75.10	1 79.46 ^{***}	2 71.36	2 71.60	1 76.65	1 76.65	2 72.31	1 76.90				
71	공공안전/부패부조리	3 65.33	38 44.43 ^{***}	3 62.67	3 67.04	3 63.49	3 63.49	3 64.60	3 65.28			bc ^{***}	
97	일시위주 교통	4 59.23	6 60.65	4 67.15	4 56.01	4 62.46	4 62.46	5 54.01	5 62.45			bc ^{***}	
191	불은 심연물	5 59.01	71 39.13 ^{***}	5 62.93	5 54.90	4 63.15	4 63.15	4 55.98	6 60.92			bc ^{***}	
246	전단 마들립(알파)	6 56.86	5 62.93	7 50.69	9 51.22	5 62.57	5 62.57	6 51.44	7 60.20			bc ^{***}	
15	전단 마들립(알파) 부당한 관련 개입	7 51.72	42 43.98 ^{***}	9 54.50	6 52.90	11 50.40	11 50.40	7 50.36	8 52.62			bc ^{***}	
9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8 50.76	138 32.04 ^{***}	8 57.38	19 44.01	8 52.45	8 52.45	8 49.82	9 51.35			bc ^{***}	
115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9 49.75	15 49.67	13 52.16	13 47.44	9 52.12	9 52.12	159 24.36	4 64.98			bc ^{***}	
164	고수독자	10 49.63	72 39.07 ^{***}	16 45.83	10 50.22	15 48.91	10 48.41	11 50.45				bc ^{***}	
163	반부패/부패의 현종	11 48.22	30 45.89	12 53.16	22 43.20	11 49.67	23 46.73	11 47.66	12 48.65			bc ^{***}	
347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12 47.43	31 45.74	27 47.28	11 47.70	7 52.56	42 42.25	26 41.91	10 50.81			bc ^{***}	
181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13 47.37	55 41.45 ^{***}	19 48.39	13 46.43	25 42.65	8 52.24	13 47.05	15 47.65			bc ^{***}	
16	기부금(소수비/불로소득자)의 정치	14 46.92	55 41.45 ^{***}	11 53.61	33 40.09	16 45.66	18 48.11	14 46.44	17 47.29			bc ^{***}	
127	부유층	15 46.75	9 52.62 ^{***}	43 42.05	5 51.73	19 45.10	17 48.34	12 47.35	21 46.48			bc ^{***}	
4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16 46.41	32 45.58	24 47.61	14 45.28	12 48.00	30 44.66	9 49.02	28 44.95			bc ^{***}	
157	부패(부패) 총조 만연	17 46.13	109 35.26 ^{***}	17 49.17	24 43.09	18 45.21	20 46.96	22 42.36	13 48.47			bc ^{***}	
47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18 46.02	173 30.02 ^{***}	25 47.39	16 44.70	22 43.10	14 49.14	15 46.29	23 45.94			bc ^{***}	
325	소수의 이익/노인 정치	19 45.68	21 48.32	20 46.28	23 43.09	23 43.10	15 48.34	20 42.97	16 47.38			bc ^{***}	
99	교육의 정의/학/사교육 개입	20 45.63	14 49.72	7 57.60	66 33.29	20 44.54	22 46.73	17 45.54	25 45.76			bc ^{***}	
49	소수정당 해소	21 45.51	4 60.76 ^{***}	37 43.17	10 48.04	35 40.09	10 50.98	29 41.15	14 48.19			bc ^{***}	
102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22 45.29	23 47.57	18 48.95	21 41.59	15 46.33	32 44.70	18 44.78	26 45.67			bc ^{***}	
274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23 44.78	28 46.36	56 35.48	29 41.67	19 47.76	25 42.06	19 46.48				bc ^{***}	
68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24 44.61	80 37.86 ^{***}	21 48.05	30 41.13	14 46.88	41 42.25	24 42.05	22 46.21			bc ^{***}	
13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25 44.21	73 38.74 ^{***}	35 43.40	15 45.16	28 42.20	25 46.27	32 40.54	20 46.48			bc ^{***}	
85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26 44.16	100 35.87 ^{***}	23 47.61	32 40.67	17 45.43	38 42.82	19 43.27	29 44.77			bc ^{***}	
190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27 44.16	98 36.26 ^{***}	34 43.84	17 44.59	41 38.42	12 50.17	37 39.64	18 46.93			bc ^{***}	
333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28 43.93	11 51.32 ^{***}	40 37.79	31 43.76	33 44.09	27 41.45	27 41.45	27 45.49			bc ^{***}	
53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29 43.70	5 60.66 ^{***}	36 43.29	31 41.31	26 46.04	33 40.24	33 40.24	24 45.85			bc ^{***}	
152	정지인의 부정부패부조리	30 42.97	33 45.25	33 44.51	28 41.47	38 39.53	24 46.61	31 40.54	31 44.49			bc ^{***}	

72	공무원의 권위적 태도	31 42.91	48 42.72	30 45.05	31 40.78	24 42.65	36 43.17	23 42.21	33 43.41	abs	abs	cs
73	성범죄 증가에 따른 피해	32 42.80	7 57.01 ^{abs}	22 47.84	42 37.67	88 30.85	7 55.22	35 39.79	30 44.68	abs	abs	cs
29	정신장애인의 인권	33 42.41	129 32.84 ^{abs}	44 41.73	21 43.20	37 39.76	28 45.01	30 40.54	32 43.59	bs	bs	abs
50	대기업의 정치 불신/정치 무관심	34 42.18	8 55.96 ^{abs}	51 40.73	24 43.78	48 37.53	21 46.84	34 40.24	34 43.41	bs	bs	abs
20	국민의 정치 불신/정치 무관심	35 42.12	50 42.60	39 42.95	29 41.36	30 41.87	40 42.37	28 41.30	37 42.69			abs
162	빈민부의 부의부	36 41.90	53 41.83	26 47.39	51 36.29	33 40.76	37 43.05	21 42.51	39 41.61	abs	abs	abs
89	고용제도, 고용량/낮은 도료를	37 41.56	3 62.03 ^{abs}	32 44.51	38 38.59	34 40.65	39 42.37	16 45.84	51 39.08	cs	cs	abs
214	장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38 41.39	111 34.82 ^{abs}	14 50.61	47 37.86	29 45.01	39 38.28	35 43.32	39 43.32	bs	bs	abs
226	장애평생의 부정확한/부조리	39 40.99	143 31.95 ^{abs}	56 39.62	25 42.51	26 42.43	48 39.49	41 37.97	36 42.87	abs	abs	abs
283	인간의 공정성/편파도	40 40.77	56 41.77	29 45.39	53 36.06	27 42.20	50 39.79	36 39.79	41 41.43	abs	abs	abs
128	불청(불금) 민생주의	41 40.03	19 48.81 ^{abs}	38 43.17	48 36.87	43 38.31	44 41.68	40 38.12	42 41.25	abs	abs	abs
312	비학의 불비	42 39.81	67 39.94	55 39.73	34 39.98	55 36.19	34 43.63	38 39.18	44 40.25	bs	bs	abs
56	생물소재기 처리	43 39.58	20 48.54 ^{abs}	68 37.29	26 42.05	71 33.52	27 45.69	49 36.61	40 41.43	bs	bs	abs
328	생물소재기 처리	44 39.36	25 46.91 ^{abs}	57 39.51	36 39.29	53 36.64	43 42.14	55 35.10	38 41.97	bs	bs	abs
1	공공성평가 확립:제도와 증폭 마련	45 39.36	34 45.11 ^{abs}	54 40.07	37 38.71	32 41.20	65 37.31	45 37.22	43 40.70	bs	bs	abs
173	중소기업의 도산	46 38.85	12 50.39 ^{abs}	31 44.62	70 32.95	46 37.97	47 39.72	46 37.07	45 39.98	abs	abs	abs
212	사회복지제도 및 시설 미흡	47 38.68	40 44.04 ^{abs}	42 42.06	59 35.25	57 35.97	45 41.45	42 37.82	49 39.26	abs	abs	abs
19	정부가 재정의 재정유형	48 38.40	163 30.74 ^{abs}	62 38.40	39 38.48	45 37.97	51 38.92	47 36.91	48 39.35	abs	abs	abs
17	정부가 재정의 재정유형	49 38.11	207 27.76 ^{abs}	59 39.07	46 37.21	51 37.19	52 38.92	54 35.85	47 39.53	abs	abs	abs
131	정부가 재정의 재정유형	50 38.11	117 34.11 ^{abs}	45 41.62	62 34.56	42 38.31	59 37.89	55 35.40	46 39.80	abs	abs	abs
91	주치난	51 37.94	47 42.77 ^{abs}	71 36.51	35 39.52	50 37.19	54 38.58	44 37.22	55 38.45	abs	abs	abs
8	정지불안	52 37.89	217 27.00 ^{abs}	63 38.18	41 37.67	40 38.53	68 37.20	52 36.01	52 39.08	abs	abs	abs
129	개인의 권리	53 37.83	18 49.01 ^{abs}	53 40.18	57 35.48	36 39.87	77 35.59	43 37.52	59 38.09	abs	abs	abs
18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54 37.38	51 42.49 ^{abs}	41 42.40	75 32.26	39 39.09	76 35.59	48 36.76	61 37.82	abs	abs	abs
336	대입시 지옥	55 37.27	16 49.56 ^{abs}	40 42.51	80 31.91	58 35.41	49 39.27	53 36.01	57 38.09	abs	abs	abs
98	고교생의 과중한 공부 압력	56 36.53	84 37.69	46 41.51	85 31.45	63 34.74	55 38.46	67 32.22	50 39.17	abs	abs	abs
266	여성의 상하복	57 36.08	113 34.43	28 45.73	143 26.15	118 28.17	31 44.32	65 32.68	56 38.18	abs	abs	abs
114	공공안전의 대학생	58 36.02	26 46.74 ^{abs}	65 37.62	52 36.45	52 36.75	82 35.13	58 34.64	67 36.91	abs	abs	abs
3	지역차별 해소	59 35.86	17 49.06 ^{abs}	73 36.40	58 35.37	56 36.08	79 35.48	68 32.22	58 38.09	abs	abs	abs
145	학벌 우선	60 35.86	123 33.39	50 40.84	94 30.76	65 34.41	64 37.31	59 34.19	66 36.91	abs	abs	abs
62	도시 위생관리 부족	61 35.63	66 40.01 ^{abs}	52 40.29	89 30.88	72 33.41	58 37.89	50 36.31	76 35.29	abs	abs	abs
96	정신장애인의 인권	62 35.67	36 44.87 ^{abs}	47 41.51	103 23.49	67 34.08	66 37.20	62 32.98	62 37.18	abs	abs	abs
342	성범죄	63 35.52	58 39.18	58 39.18	120 27.95	35 43.40	35 43.40	64 32.83	63 37.18	abs	abs	abs
245	도시, 농촌간 빈부 격차	64 35.12	58 41.45 ^{abs}	64 37.85	79 32.37	69 33.96	71 36.39	91 29.20	53 38.72	abs	abs	abs
82	공공주택	65 35.06	119 33.77	48 40.84	109 23.15	74 33.07	67 37.20	66 32.53	68 36.64	abs	abs	abs
293	외국인노동자	66 35.06	261 22.52 ^{abs}	49 40.84	110 29.15	49 37.42	96 32.72	51 36.31	85 34.39	abs	abs	abs
231	집합주택	67 35.06	150 31.46 ^{abs}	83 35.18	60 35.02	79 31.96	56 38.35	85 30.26	60 38.00	abs	abs	abs

[illegible]

343 아동학대/아동성범죄	106 30.49	78 35.74	153 25.12	206 21.60	45 39.72	105 28.14	104 31.95	abc
276 외래문화체험	107 30.27	81 37.76 ^{abc}	95 30.53	281 29.40	292 31.11	125 28.14	221 31.59	abc
140 국민의근거점 체험 정신 시회	108 30.27	61 41.00 ^{abc}	76 32.62	109 29.06	112 31.34	96 29.80	113 30.60	abc
201 기초과학기술 독자 미술	109 30.10	35 44.92 ^{abc}	70 33.74	171 23.27	70 33.74	170 26.29	77 31.01	abc
348 교육시설 투자	110 29.98	95 33.07	137 26.84	116 28.29	109 31.80	102 28.44	112 30.96	abc
284 언론이 국민이의 대변 못함	111 29.98	162 30.79	98 32.74	101 29.51	122 30.54	106 28.14	111 31.14	abc
326 노인 양로시설 부족	112 29.87	175 29.93	159 27.08	72 32.63	96 28.73	127 29.97	107 31.77	abc
345 생활고 부반 자살/정파탄	113 29.76	142 28.75	90 30.88	155 25.39	87 34.33	139 25.72	101 32.22	abc
104 대외비 부관/고급과의상행	114 29.70	186 29.19	192 23.64	54 36.73	100 32.61	100 28.59	117 30.42	abc
88 대중교통수단 정책 개선	115 29.53	24 47.30 ^{abc}	128 27.53	132 26.95	105 32.15	104 28.14	115 30.42	abc
352 환경유로목	116 29.25	115 30.97	129 27.53	143 26.06	98 32.61	137 25.87	110 31.32	abc
304 민영제도 합리화/영역별 지정	117 29.25	160 30.79	100 32.52	147 25.92	90 30.85	147 25.11	108 31.77	abc
262 자녀 자활 노력	118 29.14	181 29.61	79 35.74	166 22.35	217 20.60	57 38.00	121 27.08	abc
63 자연 자원 보존	119 29.08	210 27.66	101 32.41	149 25.69	126 27.51	121 30.65	121 30.05	abc
204 에너지 낭비/절약	120 29.08	192 28.92	126 30.08	122 28.11	145 26.06	106 32.03	90 29.50	abc
133 불신공조	121 28.97	108 35.28 ^{abc}	139 29.08	113 28.92	100 29.62	149 28.24	127 26.48	abc
126 사회 계층간 위화감	122 28.97	151 31.42	133 29.63	120 28.34	110 28.95	137 29.05	94 29.20	abc
36 정부/기업의 역할 조장	123 28.85	166 30.68	108 31.74	145 25.92	154 25.39	103 32.38	95 29.05	abc
223 현실서목학: 불공정한 법진행	124 28.80	78 38.13 ^{abc}	116 30.97	139 26.61	84 31.29	171 26.18	97 28.90	abc
167 세입 개장: 불공정한 세금부담	125 28.68	168 30.30	162 26.97	96 30.53	99 29.62	152 27.78	103 28.44	abc
251 자녀 교육 해이/과잉 보호	126 28.51	146 31.84 ^{abc}	147 28.41	116 28.69	157 25.17	108 31.92	109 28.14	abc
110 학교 주변 광택업소 증가	127 28.35	63 40.18 ^{abc}	175 25.31	94 31.57	139 26.61	126 30.08	145 25.26	abc
341 농수산	128 28.29	149 28.08	118 28.57	146 25.95	118 30.77	83 30.26	165 27.17	abc
158 공공시설 관리 소홀/결절	129 28.29	118 34.11 ^{abc}	122 30.52	144 26.04	200 22.05	85 34.56	113 27.69	abc
294 철도 없는 복합 정책	130 28.18	144 31.95 ^{abc}	151 27.75	115 28.69	114 28.51	150 27.90	149 24.81	abc
200 유류구조 혁신/공간상인 취워	131 28.12	44 43.76 ^{abc}	140 28.97	132 27.30	124 27.84	148 28.24	154 24.51	abc
165 인텔/텔가 인정	132 28.12	49 42.60 ^{abc}	171 25.53	92 30.88	167 24.28	107 32.03	144 25.42	abc
39 인제의 경제적소 등등 실패	133 28.06	135 32.17 ^{abc}	112 31.19	155 24.88	146 28.24	122 26.93	139 28.79	abc
253 부문의 권위 상실	134 28.06	238 25.00 ^{abc}	178 24.75	83 31.57	134 26.84	132 29.39	140 25.72	abc
147 인간/생명 경시	135 28.01	272 20.25 ^{abc}	118 30.97	154 25.00	138 26.61	134 29.39	132 26.32	abc
93 교통질서 확립	136 27.89	76 38.30 ^{abc}	156 27.30	117 28.57	115 28.40	159 27.21	129 26.32	abc
331 청소년 탈선/가솔	137 27.78	145 31.95 ^{abc}	169 26.08	102 29.61	129 27.28	147 28.24	156 24.36	abc
289 인터넷의 발달주의	138 27.78	155 31.29 ^{abc}	109 31.74	165 23.73	117 28.29	161 27.21	115 27.53	abc
187 금융융합	139 27.78	253 23.34 ^{abc}	153 27.64	124 28.00	112 28.84	166 26.64	125 26.63	abc
151 유류	140 27.72	130 32.78 ^{abc}	185 24.42	87 31.22	151 25.72	129 29.62	141 25.57	abc
119 대학생 과소비	141 27.33	161 30.79 ^{abc}	146 26.53	121 28.23	135 26.84	153 27.78	160 24.05	abc
275 문화시설/공간 투자 미흡	142 27.16	228 25.93	85 34.74	228 19.35	144 26.06	143 28.36	134 26.02	abc

263 산업체의 남녀차별	91 33.85	216 20.28	254 16.93	61 37.77	135 26.02	156 27.89	abc	abc
239 농산물 대외경쟁력 약화	105 32.08	191 22.12	148 25.95	142 28.47	150 24.81	144 28.61	abc	abc
136 공공응답서 확립	163 26.97	133 27.30	153 25.61	140 28.59	119 27.23	167 27.08	abc	abc
319 술·담배 소비 과다	155 26.30	127 27.76	133 26.84	160 27.21	187 22.09	122 29.96	abc	abc
252 남아녀 차별	113 31.19	177 22.10	171 23.83	125 30.20	126 26.48	163 27.35	abc	abc
123 교육제도 개선	138 29.19	159 24.65	128 27.39	169 26.41	128 26.48	165 27.26	abc	abc
316 병원의료시설 확대 필요	152 27.64	142 26.15	162 24.39	130 29.51	152 24.51	147 28.34	abc	abc
198 외국 상품 선호	157 27.30	140 26.50	187 22.72	115 31.00	138 25.87	160 27.53	abc	abc
244 농어촌 문화시설 미비	102 32.41	209 21.08	163 24.39	135 29.28	183 22.39	128 29.51	abc	abc
106 농항지하철 복복	111 31.41	192 22.12	175 23.39	124 30.31	142 25.57	158 27.62	abc	abc
250 노동조합 근로조건 개선	123 30.30	174 23.04	152 25.61	151 27.78	176 23.00	133 28.97	abc	abc
73 공직사회 관료주의화	154 26.60	185 29.42	143 25.81	113 28.62	178 24.45	117 27.38	abc	abc
148 성적 문화성 개방	168 26.19	136 26.96	149 25.95	162 27.21	172 23.15	145 28.61	abc	abc
285 여성을 연구 중가	205 22.86	99 30.30	107 29.29	190 23.65	148 25.11	162 27.35	abc	abc
199 통일정책 거대대기업의 필요	150 28.08	157 24.77	141 26.28	168 26.52	164 23.60	149 28.16	abc	abc
335 학업으로 인한 초등교원 자살	132 29.74	175 22.93	198 22.16	119 30.77	188 21.94	130 29.06	abc	abc
77 민생치안	198 23.31	104 28.49	156 25.28	156 27.32	163 23.60	152 27.98	abc	abc
258 남편의 아내 폭행	103 32.19	217 20.28	225 19.71	94 33.18	168 23.30	148 28.16	abc	abc
113 대학 입학제도 개선/대입 제수령	130 29.86	184 22.47	173 23.61	138 28.82	136 26.02	171 26.35	abc	abc
75 행정절차의 간소화	127 33.11	125 27.88	111 28.84	193 23.42	155 24.36	164 27.26	abc	abc
155 직장차별/거점의식	135 29.52	183 22.47	188 22.72	132 29.39	162 23.75	161 27.44	abc	abc
12 정부인물인후 문제 대비 소를	137 29.30	181 22.58	150 25.84	172 26.18	158 24.36	168 26.99	abc	abc
143 정치자녀한 경쟁 사회	136 29.52	188 22.24	172 23.61	145 28.36	133 26.32	180 25.72	abc	abc
80 조직 폭력배/조직범죄 증가	214 21.98	101 29.84	119 27.95	192 23.54	181 22.39	154 27.89	abc	abc
207 불건전한 오락 문화/문화 정책	180 24.75	135 26.96	165 24.39	157 27.32	178 23.00	159 27.53	abc	abc
168 부동산세금/교육비	218 21.42	98 30.41	159 24.94	164 26.75	189 21.94	151 28.16	abc	abc
134 전문문화(문화·도덕·관습) 쇠퇴	200 23.31	119 28.46	160 24.94	167 26.66	180 22.54	157 27.80	abc	abc
103 고가의 절제 저하	128 33.06	203 21.43	184 22.83	139 26.70	151 24.81	172 26.35	abc	abc
74 행정절차 간소화	199 29.97	131 27.42	130 27.17	168 23.86	130 26.32	184 25.09	abc	abc
314 행정절차 간소화/이동의 어려움	222 26.60	189 23.75	185 22.72	155 27.44	170 23.15	174 26.17	abc	abc
105 공공안전영역	110 34.95	186 24.20	146 25.92	185 22.72	173 23.15	175 26.17	abc	abc
184 공공안전영역	156 31.07	173 25.42	160 24.65	183 22.83	158 27.32	173 26.17	abc	abc
285 공공안전영역	180 29.64	210 20.97	150 29.40	225 20.32	167 23.45	178 25.08	abc	abc
285 공공안전영역	224 26.55	145 28.41	207 21.20	158 24.94	177 24.68	176 26.08	abc	abc
235 농어민 부채(비)	170 25.97	168 23.50	168 24.16	176 25.37	225 17.85	135 28.88	abc	abc
217 단절의 부	181 24.64	156 24.77	142 26.17	196 22.19	157 24.36	196 22.91	abc	abc
287 공공안전영역	155 27.41	197 21.54	212 20.71	141 28.47	175 23.00	182 25.45	abc	abc
83 공공안전영역	166 26.19	176 22.70	161 24.72	183 24.23	193 21.18	170 26.44	abc	abc
344 공공안전영역	231 25.77	177 24.86	162 24.08	204 21.71	163 27.10	182 22.39	abc	abc

177	기업가 정신 결여/악의 기업가	181	24.22	153	31.40 ^{***}	161	26.97	202	21.43	155	24.28	187	24.00	165	23.60	187	24.64	***	
259	임시종업(남녀)	182	24.17	252	23.47	188	23.97	242	18.20	181	22.83	175	25.60	206	19.67	169	26.90	***	***
247	노년층의 노년문제	183	24.17	225	26.55	198	23.86	169	24.54	169	24.05	194	24.23	161	23.75	189	24.46	***	bc ^a
291	연령별 부양부담	184	23.88	189	29.14 ^{***}	184	24.42	169	23.39	201	21.94	173	25.95	153	24.51	199	23.56	***	bc ^a
59	단일부모 가정	185	23.77	137	32.17 ^{***}	183	24.53	173	23.04	203	21.71	174	25.72	174	23.00	190	24.28	***	
307	한반도 전쟁발발 위험	186	23.55	243	24.13	199	23.31	164	23.85	193	22.49	179	24.45	171	23.15	195	23.83	***	bc ^a
43	정치적 대안인원	187	23.38	195	28.60 ^{***}	131	23.74	253	16.82	192	22.49	182	24.34	186	22.24	192	24.10	***	bc ^a
305	고교대학 진학비	188	23.38	218	26.95 ^a	160	27.08	224	19.59	196	22.27	180	24.45	198	20.27	183	25.27	***	***
243	고아/미친 부모/지위	189	23.38	188	28.14 ^{***}	172	25.42	204	21.31	221	20.04	165	26.64	205	19.82	181	25.54	***	ac ^a
337	유기의 비전	190	23.21	187	23.97	182	22.47	121	27.95	244	18.37	169	23.15	204	23.29	201	23.29	***	bc ^a
237	농업과 도시 생활의 변화	191	23.04	182	29.58 ^{***}	259	17.54	114	28.80	244	17.93	144	28.36	177	23.00	207	23.10	***	***
154	매우 낮은 생활수준	192	22.92	152	31.40 ^{***}	191	23.64	187	22.24	177	23.05	199	22.85	200	20.12	188	24.64	***	ac ^a
179	학업과 진로	193	22.87	209	27.70 ^{***}	209	22.53	172	23.27	202	21.83	186	24.00	192	21.33	196	23.83	***	abc ^a
95	교육 정책	194	22.70	92	36.75 ^{***}	193	21.53	193	21.89	189	22.61	197	22.85	184	22.24	208	23.01	***	
202	기술의 대의의	195	22.64	105	35.54 ^{***}	143	28.75	260	16.36	178	22.94	207	22.27	194	21.18	200	23.56	***	
234	어른 경제	196	22.42	85	37.69 ^{***}	174	25.31	227	19.47	195	22.38	204	22.39	223	18.15	185	25.00	***	bc ^a
58	음해로 인한 피해	197	22.30	215	27.26 ^{***}	239	19.09	150	25.59	215	20.60	185	24.11	195	20.73	203	23.29	***	
227	순환경제	198	22.25	234	25.39 ^a	204	22.97	198	21.54	164	24.39	228	19.98	196	20.57	205	23.29	***	bc ^a
176	지방정제	199	22.25	183	29.58 ^{***}	196	23.53	211	20.97	182	22.83	213	21.58	290	12.41	150	28.16	***	***
277	문화의 대의의	200	22.08	158	30.92 ^{***}	146	28.41	269	15.55	180	22.83	214	21.24	209	19.36	198	23.74	***	
242	어른 경제	201	22.02	141	32.01 ^{***}	210	22.31	195	21.77	186	22.72	215	21.24	191	21.33	212	22.47	***	ac ^a
338	농업의 발전	202	21.91	236	24.34	219	21.31	180	22.58	147	25.95	255	17.68	166	23.45	228	21.03	***	bc ^a
218	공공의 복지	203	21.74	236	24.34	203	23.09	215	20.39	174	23.50	229	19.86	190	21.79	220	21.75	***	***
334	중소기업의 경쟁력	204	21.68	74	38.74 ^{***}	221	21.09	185	22.35	190	22.61	219	20.78	233	17.40	191	24.28	***	***
330	중소기업의 경쟁력	205	21.68	133	32.45 ^{***}	237	19.42	163	24.08	216	20.60	198	22.85	212	18.91	202	23.38	***	bc ^a
141	전통 예술	206	21.63	142	31.95 ^{***}	253	17.98	151	25.46	197	22.27	220	20.78	224	18.00	197	23.83	***	bc ^a
254	미혼자의 복지	207	21.51	273	20.03	236	19.64	167	23.50	137	26.61	270	16.30	234	17.40	194	24.01	***	ac ^a
271	도시빈민 문제	208	21.34	211	27.57 ^{***}	190	23.75	234	18.89	223	19.93	202	22.73	199	20.12	216	22.11	***	***
264	미혼모 문제	209	21.06	248	23.66	227	20.42	194	21.77	235	18.93	194	23.31	215	18.46	211	22.65	***	bc ^a
197	저임금 해소/생활급 보장	210	20.95	177	29.80 ^{***}	238	19.31	178	22.70	238	18.37	191	23.65	240	16.79	201	23.47	***	***
318	학원의 옹호와 남용	211	20.89	197	28.33 ^{***}	212	22.09	223	19.70	229	19.15	201	22.73	230	17.55	209	22.92	***	***
70	행정 기관	212	20.89	149	31.46 ^{***}	211	22.20	225	19.59	218	20.71	217	21.13	291	12.41	177	25.99	***	***
290	하위계층의 복지	213	20.89	91	37.09 ^{***}	234	19.76	190	22.12	228	19.27	203	22.62	213	16.61	214	22.29	***	***
349	전통 예술	214	20.89	176	25.08	258	16.59	199	22.05	230	19.75	201	19.97	235	19.75	201	19.97	***	bc ^a
137	노동 경시/근로 의욕	215	20.84	95	36.37 ^{***}	224	20.75	212	20.97	218	20.49	216	21.13	208	19.67	224	21.57	***	
296	비록한 동질성 상실	216	20.78	102	35.82 ^{***}	202	23.09	240	18.43	208	21.38	226	20.21	227	17.70	210	22.65	***	bc ^a
249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개선	217	20.78	154	31.29 ^{***}	179	24.75	257	16.71	209	21.16	223	20.44	210	19.36	222	21.66	***	***

286	농어촌 의료/보건 시설	218 20.78	191 28.97 ^{abc}	215 21.64	219 19.93	230 19.15	205 22.27	239 16.79	205 23.19	abc
192	사회간접자본 투자 대비	219 20.78	196 28.42 ^{abc}	195 23.53	244 17.97	191 22.61	238 18.94	211 19.06	219 21.84	abc
220	총합	220 20.72	256 23.18	216 21.53	220 19.93	211 20.82	221 20.67	214 18.61	218 22.02	
288	TV 폭력물 역외/수출부진	221 20.67	227 26.21 ^{abc}	288 14.76	138 26.84	253 17.04	181 24.45	221 18.15	215 22.20	abc
169	대외 경쟁력	222 20.55	65 40.07 ^{abc}	205 22.97	243 18.09	207 21.49	231 19.63	203 19.97	231 20.94	abc
225	사회간접자본 투자 대비	223 20.50	255 23.23 ^c	223 20.28	170 24.03	266 16.76	207 19.67	230 21.03	230 21.03	abc
84	정치의 관료주의	224 20.33	244 24.12 ^{abc}	213 21.98	235 18.66	179 22.83	254 17.68	204 19.82	235 20.67	abc
64	주목 정책/가격/보급률/전송	225 20.21	87 37.31 ^{abc}	241 18.98	195 21.54	257 16.70	189 23.88	185 22.24	251 19.04	abc
292	교육/사대외교	226 20.21	251 23.51 ^c	187 26.19	288 14.06	176 23.27	260 17.11	202 19.97	239 20.40	abc
159	사회정의 실현	227 20.21	190 29.14 ^{abc}	214 20.51	194 22.49	252 17.91	218 18.46	226 21.30	226 21.30	abc
301	한반도 주변국 강대국 영향	228 20.05	250 23.52 ^c	201 23.20	254 16.82	205 21.71	249 18.25	231 17.55	223 21.57	abc
139	국민의 안전감	229 19.93	159 30.85 ^{abc}	255 17.76	189 22.24	232 19.15	222 20.67	249 15.73	213 22.47	abc
297	법	230 19.89	126 33.22 ^{abc}	267 16.32	166 23.62	210 21.05	241 18.60	217 18.31	232 20.85	abc
27	민족 정체성 확립/역사관 확립 실패	231 19.82	79 38.05 ^{abc}	194 23.53	267 16.01	220 20.16	232 19.52	222 18.15	233 20.85	abc
320	마약 사용 증가	232 19.71	86 37.60 ^{abc}	248 18.31	206 21.20	222 19.93	234 19.40	241 16.49	221 21.66	abc
328	노인 노동력 활용	233 19.65	187 29.19 ^{abc}	252 17.98	199 21.43	249 17.71	212 21.70	236 17.25	227 21.12	abc
52	소통	234 19.54	221 26.60 ^{abc}	229 19.98	230 19.12	256 16.82	205 22.27	220 18.15	238 20.40	abc
55	한반도 주변국가 핵무기를 처리	235 19.48	39 44.12 ^{abc}	265 20.64	241 18.32	225 19.04	245 19.98	233 17.40	279 20.76	abc
208	여가시설 증설	236 19.48	265 21.69	207 22.75	264 16.13	242 16.15	218 20.90	197 20.42	253 18.95	abc
7	지방 재정 위기/지방화 대비	237 19.20	178 29.78 ^{abc}	222 20.98	247 17.40	226 19.49	239 18.83	305 11.20	193 24.01	abc
267	여성의 과다노출	238 19.20	226 36.40 ^{abc}	293 13.98	158 24.65	227 19.49	237 18.94	267 14.52	217 22.02	abc
100	과학교육/교육 개선	239 18.97	116 34.16 ^{abc}	217 21.53	261 16.36	219 20.27	257 17.45	218 18.31	247 19.40	abc
282	언론자유 보장	240 18.92	257 23.15 ^{abc}	208 22.64	274 15.09	224 19.82	251 17.91	237 17.25	241 19.95	abc
322	무면허/무자격 의료 행위	241 18.85	284 18.77	242 18.87	233 18.89	274 15.14	200 22.73	259 15.28	229 21.03	abc
242	노조의 과다한 임금폭정	242 18.75	229 25.83 ^{abc}	269 16.30	200 21.43	213 20.71	265 16.76	228 17.70	246 19.40	abc
94	대형사고/중도/항공/선박	243 18.69	204 27.98 ^{abc}	251 17.96	226 19.47	272 15.37	208 22.16	219 18.15	250 19.04	abc
144	농업/농촌의 사회 건설	244 18.68	240 24.56 ^{abc}	235 19.76	245 17.63	234 19.04	246 18.37	254 15.58	237 20.58	abc
252	신교정신 부활	245 18.63	263 21.91 ^c	246 18.65	236 18.66	245 17.93	235 19.40	229 17.70	248 19.22	abc
86	인신 매매/남성	246 18.46	52 42.44 ^{abc}	265 16.32	213 20.74	208 13.92	195 23.19	244 16.34	243 19.77	abc
236	농수산물 수입개방/무꾸과이 라운드	247 18.24	10 51.43 ^{abc}	283 15.21	201 21.43	278 14.59	210 22.04	270 14.37	236 20.58	abc
353	농촌도움	248 18.18	277 15.43	208 21.03	277 14.70	211 21.81	245 16.04	244 19.49	244 19.49	abc
308	정권의 간헐 사건 정치체 이용	249 18.18	295 16.95	226 20.53	268 15.78	251 17.59	240 18.83	247 16.04	245 19.49	abc
125	대학생 가치관 교육	250 18.07	259 22.85 ^{abc}	253 17.65	239 18.55	250 17.71	247 18.37	266 14.67	240 20.13	abc
92	연전지 쉼표	251 17.90	208 27.70 ^{abc}	240 18.98	252 16.82	293 13.70	209 22.16	235 17.25	258 18.32	abc
178	부동산 투기	252 17.73	70 39.57 ^{abc}	275 15.75	222 19.82	231 19.15	272 16.19	242 16.49	255 18.50	abc
268	수도권/도시 인구 집중	253 17.67	200 28.24 ^{abc}	268 16.24	237 18.37	263 16.99	258 15.43	252 19.04	252 19.04	abc
149	북한이탈민	254 17.62	304 15.95	291 14.10	205 21.31	265 16.15	236 19.17	253 15.58	254 18.86	abc
315	북한이탈민 집단 의료기술 편중	255 17.56	235 24.35 ^{abc}	271 16.09	231 19.12	246 17.82	258 17.34	245 16.19	257 18.41	abc

132	이웃 나라에 간섭자가 없다	256 17.56	281 19.26	272 16.09	232 19.12	243 18.04	262 17.11	243 16.49	260 18.23
57	마련 교란	257 17.45	83 37.69***	256 17.65	248 17.28	248 17.71	226 17.11	226 17.70	268 17.33
64	국내 해방을 처리장	258 17.33	122 34.41***	254 18.65	265 16.01	279 14.48	224 20.32	268 14.37	249 19.13
24	인민수 수확	259 17.33	246 23.96***	231 19.98	282 14.63	261 16.26	248 15.89	259 18.23	282 19.86
295	인민 통일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260 17.22	267 21.30**	230 19.98	283 14.40	263 16.15	245 18.37	287 12.86	242 19.86
339	국민연맹의 확대	261 16.88		237 18.55	259 16.37	256 17.45	238 16.79	272 16.97	
306	북한의 남북간첩 문제	262 16.88	332 8.50***	281 15.32	238 18.55	271 15.48	248 18.25	256 15.43	263 17.78
22	정치의 민족화	263 16.88	212 27.50***	257 17.65	263 16.13	252 17.59	276 15.96	261 18.05	
286	전통적 의례문화의 무비판적 수용	264 16.77	244 18.87	281 14.63	266 15.81	253 17.80	267 15.43	265 17.60	
222	인간 악행/악행/인간 길에	265 16.66	237 25.06***	233 19.87	294 13.36	258 16.59	267 16.76	265 14.83	264 17.78
209	여가고용 필요	266 16.66	288 18.10	197 23.42	331 9.68	290 13.92	233 19.52	260 15.28	267 17.51
60	생활환경 미화	267 16.60	268 21.14***	266 16.32	251 16.94	273 15.37	250 17.91	278 13.46	255 18.50
213	경제에 예방과 보상	268 16.60	167 30.41***	254 17.87	272 15.32	264 16.15	261 17.11	271 14.37	262 17.96
101	그리스에서 처음 개신	269 16.60	303 16.13	271 15.44	239 18.37	289 14.58	262 15.13	270 17.33	
310	국민건강강 책무부제	270 16.43	245 24.02***	243 18.87	289 13.94	236 18.82	293 14.01	255 15.43	271 17.06
351	전자파 공해	271 16.37		270 16.09	255 16.71	280 14.37	242 18.48	264 14.83	269 17.33
298	불합리한 경제 주체	272 16.37	220 26.66***	263 16.43	259 16.36	240 16.26	290 14.47	250 15.58	275 16.88
303	국립미술관 설립	273 15.70	266 21.42***	282 18.42	298 12.96	262 16.26	285 15.15	276 13.62	273 16.97
189	외국자본 유입/증속/대외의존 경제	274 15.70	277 19.43**	249 18.31	297 13.02	262 16.26	285 15.15	272 14.22	277 16.61
32	여당 독주	275 15.53	262 22.52***	292 13.98	249 17.17	275 15.14	274 15.96	280 13.31	276 16.88
170	문화 정책 미분	276 15.47	262 16.54	284 14.40	270 15.59	281 15.27	273 14.07	280 16.34	
172	문화 재건	277 15.30	279 19.28**	228 20.20	322 10.25	282 14.25	269 16.42	285 13.01	276 16.70
160	경제정책의 실패	278 15.25	223 26.55***	282 15.32	273 15.21	247 17.82	302 12.63	251 15.58	290 15.07
224	사상자유/기본권 제한	279 15.13	283 19.04**	280 21.20	337 8.87	284 14.14	273 16.07	281 13.31	281 16.25
324	정신질환 증가	280 15.13	283 19.27***	278 15.43	277 14.75	295 13.47	264 16.76	274 13.92	285 15.79
300	인민의 군사 대국화	281 14.74	205 27.92***	279 15.43	287 14.06	241 18.15	314 11.25	277 13.62	286 15.43
182	문화사업	282 14.68	313 14.13	325 9.77	221 19.82	301 12.92	268 16.53	303 11.50	278 16.61
193	문화사업	283 14.62	319 12.80	302 13.10	262 16.24	269 15.29	296 13.65	261 15.28	297 14.26
280	지반문화/지방 문화 시설 확충	284 14.57	233 25.39***	250 18.09	316 10.94	297 13.25	275 15.96	321 9.68	266 17.51
196	세월 개성	285 14.57	285 18.38**	300 13.65	270 15.55	255 16.93	309 12.17	296 12.10	283 16.06
26	국민의 애국심 부족	286 14.46	275 19.87***	309 11.88	250 17.17	276 14.92	294 13.78	310 11.04	279 16.52
40	전통문화/예술 활동 지원 미비	287 14.29	134 32.30***	299 13.65	276 14.98	289 13.92	288 14.58	275 13.62	293 14.71
281	전통문화/예술 활동 지원 미비	288 14.29	288 18.16**	261 17.43	315 11.06	305 12.47	271 16.19	279 13.46	291 14.80
323	국민건강강 추진	288 14.23	305 15.90	295 13.87	279 14.63	298 13.73	280 15.07	286 12.86	289 15.07
279	외래어 남용	290 14.23	260 22.69***	286 14.98	292 13.48	287 14.03	291 14.35	307 11.20	282 16.06
309	사회체육시설 미비	291 14.17	258 22.92**	290 13.59	267 15.70	305 12.63	269 14.37	299 14.08	
206	에너지 개발	292 14.00	296 16.89*	274 15.87	304 12.10	299 13.14	287 14.93	283 13.16	295 14.53

203 연구기관 전문화	293 14.00	242 24.34 ^{abc}	264 15.43	305 11.52	285 14.14	295 13.78	311 10.89	284 15.88	abc ^c
204 에이즈 환자 증가	294 13.95	249 23.52 ^{abc}	301 15.32	280 14.63	308 12.25	278 15.73	297 11.95	288 15.15	bc ^c
156 성결한 국민의식	295 13.83	293 17.38 ^{bc}	284 15.09	300 12.56	286 14.14	300 13.43	252 15.58	309 12.82	abc ^c
172 수개방입력	296 13.66	59 41.28 ^{abc}	297 13.76	291 13.59	319 11.47	277 15.96	288 12.86	298 14.17	bc ^c
146 세대간 갈등	297 13.66	307 15.07	324 9.99	246 17.51	294 13.70	298 12.66	299 11.80	292 14.80	abc ^c
260 고부간 갈등	298 13.50	310 14.67	322 10.43	256 16.71	310 11.92	283 15.15	295 12.10	296 14.35	abc ^c
188 신안군 조종	299 13.33	312 14.29	296 13.87	299 12.79	318 10.79	289 12.56	303 13.81	303 13.81	bc ^c
321 전자제품으로 인한 시력/정서 장애	300 13.27	311 14.47	319 10.65	266 16.01	316 11.58	286 15.04	309 11.04	294 14.62	bc ^c
10 약한 정부/약한 동지력	301 13.04	321 11.92	318 11.10	275 15.09	295 13.47	308 12.63	304 11.50	300 13.99	abc ^c
28 반반쯤 인사 처리 미흡	302 12.87	239 24.96 ^{abc}	273 15.93	329 9.68	283 14.14	311 11.60	302 11.50	304 13.72	bc ^c
25 국민회의 국가관 확립	303 12.87	264 21.72 ^{abc}	316 11.10	278 14.75	281 14.37	315 11.14	282 13.16	311 12.73	bc ^c
38 대입과거 청산	304 12.76	230 25.79 ^{abc}	276 15.43	324 10.02	302 12.81	304 12.74	308 11.04	302 13.81	abc ^c
228 기본권 자유가 보장 안됨	305 12.76	294 17.00 ^{abc}	289 14.76	319 10.71	303 12.81	305 12.63	301 11.65	306 13.45	abc ^c
171 정부의 눈어울 제정부담 과중	306 12.65	282 19.21 ^{abc}	298 13.76	309 11.52	314 11.69	297 13.66	335 8.17	287 15.34	abc ^c
118 반부패로 인한 대화생각 위화감	307 12.59	305 15.07 ^c	290 14.32	318 10.83	315 11.69	299 13.55	314 10.74	305 13.72	bc ^c
350 남북한 교류 확대	308 12.37	289 17.77 ^{abc}	303 12.32	301 12.44	291 13.81	316 10.91	305 11.35	307 13.00	bc ^c
30 부패한 야당	309 12.25	254 23.29 ^{abc}	305 12.10	302 12.44	317 11.58	302 12.97	323 9.53	301 13.90	bc ^c
29 정치외교 보수화/진보정당 실패	310 12.14	308 14.96 ^c	285 14.98	334 9.22	292 13.81	323 10.33	292 12.25	314 12.09	abc ^c
241 이농/농촌인구 도시 유입	311 12.03	202 28.15 ^{abc}	307 11.99	303 12.10	323 10.69	301 13.20	315 10.44	308 13.00	abc ^c
122 학원과 교육자 문화	312 11.91	278 19.32 ^{abc}	294 13.98	328 9.79	313 11.80	310 11.94	300 11.80	316 12.00	abc ^c
117 대개항과 여행객 유입 증가	313 11.91	289 17.77 ^{abc}	326 9.77	286 14.17	306 12.47	313 11.37	312 10.89	313 12.55	abc ^c
66 재개발 지역 주민 불만	314 11.80	271 20.86 ^{abc}	309 11.88	305 11.75	321 10.91	303 12.74	298 11.80	317 11.82	abc ^c
302 남북한 이대올로기 갈등	315 11.69	292 17.56 ^{abc}	304 12.10	313 11.29	300 13.03	322 10.33	318 9.98	310 12.73	abc ^c
269 인구 과밀/팽창	316 11.63	298 16.80 ^{abc}	313 11.54	306 11.75	304 12.59	319 10.68	294 12.10	321 11.37	abc ^c
257 학아시절 학생	317 11.63	274 19.88 ^{abc}	311 11.86	311 11.41	338 7.91	279 15.50	293 12.25	322 11.28	abc ^c
65 주택의 도시 집중 보급	318 11.35	286 18.27 ^{abc}	328 9.43	283 13.36	312 11.80	317 10.79	325 9.23	312 12.64	abc ^c
108 음악·악기 교육 활성화	319 11.18	299 16.61 ^{abc}	317 11.10	314 11.29	337 8.02	292 14.35	284 13.16	332 10.02	abc ^c
111 부모의 높은 교육열	320 11.01	323 11.70	331 8.99	295 13.13	327 10.47	312 11.60	326 9.23	315 12.09	abc ^c
296 가족별 개성/여신 신장	321 10.90	300 16.45 ^{abc}	306 11.99	326 9.79	346 6.79	284 15.15	322 9.68	319 11.64	abc ^c
154 사설 독자 감소	322 10.78	326 11.04	314 11.43	323 10.14	309 12.14	329 9.41	313 10.74	327 10.83	abc ^c
221 동계단체의 사회봉사활동 미비	323 10.67	314 14.07 ^{abc}	321 10.54	317 10.83	318 11.58	325 9.76	331 8.93	318 11.73	abc ^c
76 동계단체의 자유개성	324 10.56	301 16.34 ^{abc}	340 6.99	285 14.29	307 12.36	336 8.73	316 10.14	324 10.83	abc ^c
121 전교조 인정/해직교사 복직	325 10.28	174 30.02 ^{abc}	308 11.99	342 8.53	330 9.91	302 10.68	328 9.08	323 11.01	abc ^c
81 시군사회 경찰특임 과다	326 10.16	297 16.89 ^{abc}	312 11.65	338 8.64	320 11.25	333 9.07	336 8.02	320 11.46	abc ^c
313 야아 불만/불평	327 10.11	213 27.44 ^{abc}	330 8.99	312 11.29	326 10.58	325 9.64	350 8.93	325 10.63	abc ^c
270 인구의 노령화 문제	328 10.05	335 7.11 ^{abc}	339 7.21	286 13.02	322 10.69	327 9.41	324 9.53	330 10.38	abc ^c
11 정부의 민생불안 해소 의지 미약	329 9.99	232 25.61 ^{abc}	323 10.32	332 9.68	331 9.91	324 10.10	327 9.23	329 10.47	abc ^c
135 군사회 불신	330 9.94	269 20.97 ^{abc}	315 11.21	341 8.64	325 10.69	332 9.18	320 9.83	331 10.02	abc ^c

238 농산물 생산성 저하	331	9.60	309	14.91 ^{ans}	329	9.43	327	9.79	329	10.13	334	9.07	340	7.72	328	10.74	c ^a
174 생산성 저하	332	9.43	270	20.97 ^{ans}	334	8.44	321	10.48	324	10.69	338	8.15	319	9.98	336	9.12	ans
161 금융/토지 거래 실명제 실현	333	9.20	184	29.58 ^{ans}	341	6.99	310	11.52	333	9.58	335	8.84	334	8.32	334	9.75	ans
87 금융외의 각종 부채	334	9.15	318	12.80 ^{ans}	342	6.77	307	11.64	311	11.80	346	6.43	317	9.98	339	8.66	ans
45 정부외의 일반단체 악용	335	8.92	315	13.69 ^{ans}	338	7.33	320	10.60	328	10.24	342	7.58	332	8.77	337	9.03	a ^a
299 언론의 남북한 관계 보도 개선	336	8.87	290	17.72 ^{ans}	327	9.66	343	8.06	332	9.80	340	7.92	346	5.60	326	10.83	c ^{ans}
230 기본적 자유권 보장 인덱스	337	8.87	329	10.43	320	10.54	346	7.14	335	8.35	328	9.41	337	7.87	335	9.48	a ^a
61 선거주지 공제후/악인	338	8.81	291	17.72 ^{ans}	333	8.77	335	8.87	341	7.35	321	10.33	329	8.93	338	8.75	b ^a
229 외국인의 불평처리/악인	339	8.47	302	16.17 ^{ans}	337	7.55	333	9.45	339	7.80	331	9.18	333	8.62	342	8.39	
42 경제인의 정치 참여	340	8.30	325	11.09 ^{ans}	336	7.77	336	8.87	342	7.35	330	9.30	338	7.72	340	8.66	
354 동성동본 결혼	341	8.07			332	8.88	345	7.26	334	8.57	343	7.58	349	4.99	333	9.93	c ^{ans}
278 외설예술품 시비	342	7.85	317	13.33 ^{ans}	335	8.10	344	7.60	340	7.46	337	8.15	342	6.81	341	8.48	
255 핵가축화	343	7.40	328	10.54 ^{ans}	348	5.22	330	9.68	336	8.02	345	6.77	339	7.72	345	7.22	ans
180 노동쟁의 해결	344	7.00	276	19.48 ^{ans}	347	5.44	340	8.64	348	6.24	341	7.81	345	5.75	343	7.76	a ^a
37 대학생 민주 운동	345	6.78	322	11.92 ^{ans}	343	6.55	348	7.03	349	6.12	344	7.46	344	6.05	344	7.22	
124 대학내 옹공 불순 세력	346	6.66	320	11.98 ^{ans}	353	3.44	325	10.02	345	6.90	347	6.43	343	6.20	346	6.95	ans
6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347	6.27	219	26.77 ^{ans}	346	5.66	349	6.91	344	7.24	348	5.28	347	5.45	347	6.77	
205 지방분권	348	6.27	333	7.40	345	6.22	351	6.34	354	4.57	339	8.04	341	7.11	350	5.78	ans
33 공산주의 동조 세력	349	5.87	327	10.93 ^{ans}	354	3.22	339	8.64	343	7.35	353	4.36	350	4.99	348	6.41	ans
46 선거법 개정	350	5.36	324	11.20 ^{ans}	352	3.77	347	7.03	347	6.57	354	4.13	352	4.39	349	5.96	a ^a
44 정부의 금융개혁 지원	351	5.14	331	9.33 ^{ans}	344	6.44	355	3.80	350	5.46	351	4.82	348	4.99	354	5.23	a ^a
261 상이제한·인구조절	352	5.08	334	7.13 ^a	350	4.55	352	5.65	351	5.46	352	4.71	353	4.39	351	5.51	ab ^a
21 정권교체의 정당성 시비	353	5.08	336	5.57	351	3.88	350	6.34	352	5.23	349	4.94	351	4.69	353	5.32	
175 증권시장(주가 하락)	354	5.03	330	10.15 ^{ans}	349	4.68	353	5.41	353	5.01	350	4.94	354	4.39	352	5.42	
31 증권종식/민정수립	355	2.65	316	13.58 ^{ans}	355	1.33	354	4.03	355	2.90	355	2.41	355	2.42	355	2.80	a ^a

문항번호 앞에 *가 표시된 것은 1999년에 새로 추가된 문항임.